

노형욱 장관, “화물차 요소수 수급 조속한 안정화에 총력”

-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(ICD) 내 요소수 중점유통 주유소 찾아 요소수 수급상황 현장점검 · 친환경 철도물류 중요성 강조 -

□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7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(이하 의왕ICD)*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, 화물차 요소수 수급에 대해 화물업계와 주유소 운영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요소수 수급 상황을 직접 살펴보았다.

* Inland Container Depot(ICD) :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항만에서 내륙으로 바로 운송하여 도로·철도 등의 운송수단과 연계하는 내륙항만 역할

□ 이날 노 장관은 도로와 철도를 잇는 연계수송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의왕 ICD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, 탄소중립 시대에 친환경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기지의 운영을 효율화하여 내륙물류의 허브로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.

□ 아울러 노 장관은 의왕 ICD 안에 있는 ‘전국 100개소 요소수 중점유통 주유소’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요소수 공급 및 재고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주유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현장상황에 대해 직접 듣고, 조속한 수급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.

□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“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, 수급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중점유통 주유소를 통해 화물차를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”면서,

○ “범정부적으로 요소수 수급을 신속하게 안정화시키기 위해 해외 물량확보, 국내수급관리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”고 강조하고, “화물 및 버스, 건설기계 등 현장에 요소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조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2021. 11. 17.

국토교통부 대변인